

	<h2>보 도 자 료</h2>	작성과	글로벌전자정부과
	<p>2018년 10월 30일(화) 조간 (10. 29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담당자	과 장 김기병 사무관 박성주
		연락처	02-2100-3946 02-2100-3957

36개국 디지털 리더들, 한국에서 신기술을 논한다.

- 행정안전부, OECD E-Leaders 2018 서울회의 개최(10.30.~31.) -

-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제 최대의 전자정부 분야 고위급 회의인 **경제협력개발기구 E-Leaders 2018 서울회의(OECD E-Leaders 2018 Seoul Meeting)**를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.
 - 비공개로 진행된 본 연례회의에는 마리 키비니에미 OECD 사무차장, 게투어드 잉게스타드 유럽연합위원회 정보총국장 및 OECD 회원국 36개국의 디지털 정부 책임자 등 **국내외 디지털 전자정부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다.**
- **“디지털 변혁: 신기술을 활용한 국민주도의 공공서비스 실현”**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간 디지털 정부의 최신경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,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도전 과제와 주요 이슈를 논의한다.
 - 회의 1일차에는 ▲공공분야의 신기술 활용 ▲공공분야 AI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▲국민주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부 신뢰 강화 ▲국민주도 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한 ICT 사업 조달 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된다.

-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국가가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주도의 포용적 디지털 정부 구축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,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‘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지능형 정부 전략 및 추진 현황’을 공유할 예정이다.
 - 회의 2일차에는 ▲공공분야의 디지털 변혁 측정 방법 ▲디지털 정부 프레임워크 ▲디지털 정부 툴킷 등 디지털 정부 발전을 위해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된다.
-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“국경 없는 E-Leaders” 이니셔티브가 처음으로 소개될 예정이다. 본 이니셔티브는 OECD E-Leaders 활동 공유를 통한 개도국 디지털 정부 발전에의 기여와 국제연합(UN) 지속가능한개발 목표(SDGs)와의 연계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.
 - 한국 정부는 ‘00년도 초부터 한국 전자정부 성공 요인 및 교훈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고위급 전자정부 초청연수, 전자정부 협력사절단, 전자정부협력센터 등을 운영하며 국제사회 전자정부 발전에 앞장서 왔다.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“국경 없는 E-Leaders”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.
 - 11월 1일에는 OECD E-Leaders 회의에 이어 디지털 변환(Transformation) 및 정부의 신기술 활용을 주제로 글로벌 디지털 정부 포럼이 연계 개최된다.
 - OECD E-Leaders 회의와 달리 공개로 진행되는 본 포럼에서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, 게투어드 잉게스타드 유럽연합위원회 정보총국장이 개회사를 하고, 덴마크, 캐나다, 네덜란드, 핀란드 등 디지털선도국의 고위급 인사가 패널리스트로 참석한다.
 - **OECD E-Leaders 2018 서울회의 개최식에 참석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“그동안 OECD E-Leaders 회의는 각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왔으나,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디지털 변혁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더들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.”**

라면서 “이번 서울 회의가 OECD 회원국들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.”라고 말했다.